

GBT (주) 오비티

생명공학기술과 미생물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글 | 정승일 기자(jsiid@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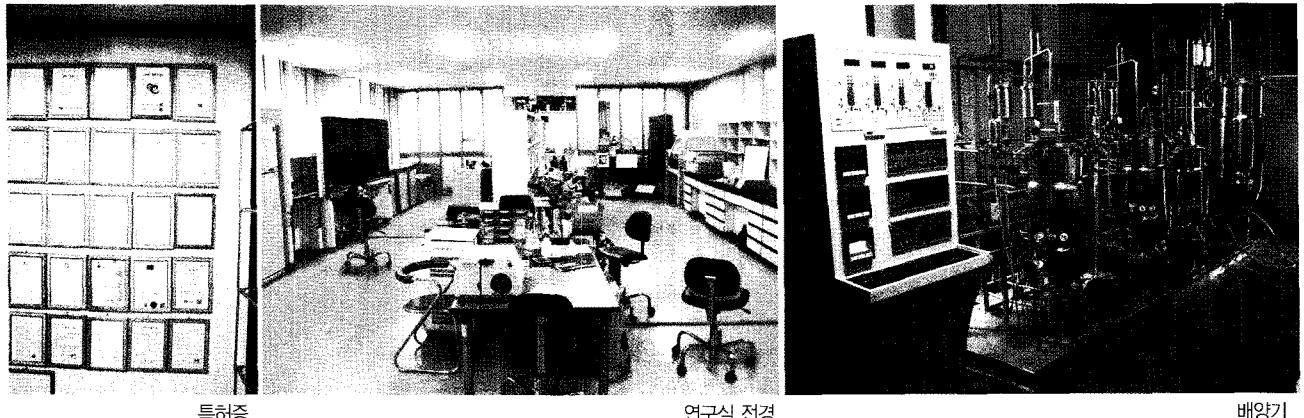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멜라민 파동 등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축산업 경쟁력의 키워드가 '안전성' 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소비자의 알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축산물 생균제와 보조사료, 배합사료 등을 개발·생산해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회사가 있다.

'正' 품만을 공급하는 생명공학 기업

(주)오비티 김경수 대표는 17년 동안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면서 우리의 농축산물을 소비자





특허증

연구실 전경

배양기

들이 먼저 찾게 하는 방안은 생산에서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고, 농가들의 수익증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오비티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6년 ‘한국미생물공학연구소’(현재 한국생명과학연구소)로 출발해 2003년 3월 (주)오비티를 설립, 복합 Bacteriocin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인체용 Probiotics 개발, 미생물 유래 Astaxanthin 순수분리 및 응용연구를 통해 현재는 전문 생명공학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균제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돼 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비싸게 제품을 구입해 쓰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축산 농가들을 보면서 회사의 사훈을 ‘正’으로 하고 제품에 있어 절대 농가들을 속이지 않고, 정품만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매일매일 연구실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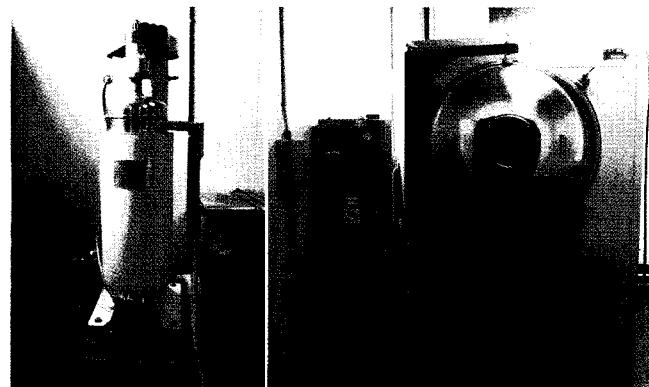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수! ‘애니락’

2003년 출시한 ‘애니락’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현재 국립축산과학원)로부터 특허 및 특허균주(*Lactobacillus crispatus*)를 기술이전 받아 생산하고 있다(특허 0458008호).

‘애니락’은 동결건조 코팅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가축의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은 물론 축분내 암모니아가스 발생량을 감소시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감소 및 장내 병원성균의 성장을 억제해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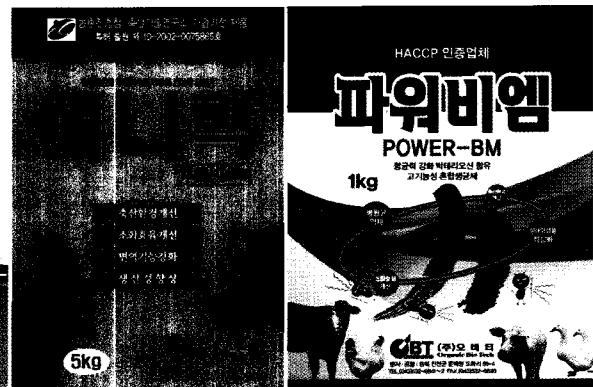


(주)오비티 김경수 대표이사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애니락

파워비엠

생균제(Probiotics)이다.

특히 육계에는 성장촉진 및 증체량 증가와 면역기능 강화, 사료효율 개선, 분뇨악취 감소, 유해가스 억제, 육질개선, 항병력 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황산화 물질 생성균주(*Phaffia rhodozyma*)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출시한 '파워비엠'은 가축의 장내 소화기관으로부터 분리한 유용한 미생물들을 동결건조 코팅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특히 항생제 대체물질인 박테리오신을 생산함으로써 가축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들에 대해 강력한 생육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복합 생균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AI가 발생했을 때 (주)오비티의 제품을 사용한 농장들에서는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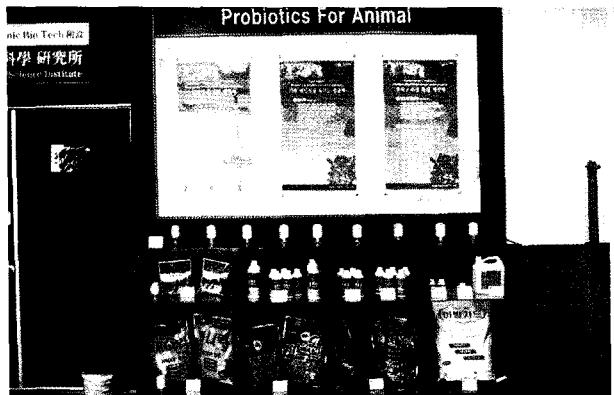
가축의 장내 생리, 생태 기능을 강화시킨 '파워비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축산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오비티는 충북대학교 수의과학대학과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파워비엠'을 출시해 축산 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워비엠'은 '애니락'의 장점에 엄선된 원료와 외신배양기법으로 천연항생물질, 고역기효소 및 생리활성물질(천연항산화물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생성하는 유효미생물군(EM)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각종 질병 및 스트레스 발생을 줄이고, 육질개선과 면역기능 강화,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유해세균의 성장억제 등의 효과와 축사내의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잔류성이 없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로 '파워비엠'은 그동안 생산성 위주의 축산경영에서 발생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 항생제 오남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제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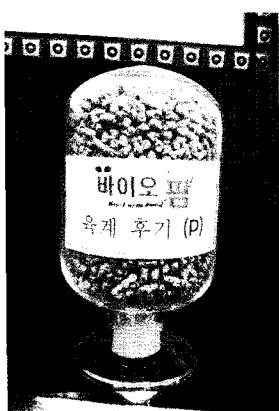


전시된 제품



전시된 제품

엄선된 원료로 영양 설계된 '바이오팜' 사료



바이오팜 사료

신선한 원료를 이용한 완벽한 영양 설계로 차별화를 선언하고 출시한 '바이오팜'은 오비티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용해 육계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정확히 파악해 에너지와 유효 아미

노산 균형 및 단백질 수준을 최적화해 생산하고 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강화해 육성률을 향상시켰으며 환경 친화적인 배합 설계로 사료효율 개선은 물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미생물 생균제 첨가로 면역기능 강화 및 성장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제품들보다 저렴하게 축산 농가에 공급하

고 있어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주)오비티 제품

2005년 9월 (주)오비티는 '애니락'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중국 장춘에 사료공장을 준공했다. 또 2007년 9월 중국 청도에 OBT 유기생물기술 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 전역에 오비티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비즈브릿지사와 MOU를 체결해 쿠알라룸프에 지사를 세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핀으로의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주)오비티는 원가 절감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구촌 환경문제와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